

300-6-147. 신문조서(洪增植 美軍布告令 제2호 위반)

■ 洪增植·宋性澈의 美軍布告令 2號 위반사건 기록 수록

- 洪增植은 1945년 8월 15일에 조직된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활동하던 중 1946년 11월 경 조선공산당, 신민당, 인민공화당이 습당하여 南朝鮮勞動黨으로 개편되자 감찰위원이 되었고, 1947년 4월경 민주주의민족전선 사무국장대리로 선임되어 활약하였다. 宋性澈은 1946년 7월 민주주의민족전선 선전부장대리로 활약하였고, 친일파·민족반역자들이 軍政에 잠입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극도로 유린되고 있다고 하는 등 기만적 선전과 중상으로 연합국을 모함하였다.
- 洪增植 등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청취서가 2회 작성되었고, 청취조사시 증언한 民戰간부는 의장단 許憲·金元鳳·金昌俊·呂運亨(死亡) 등이었다. 金光洙의 청취서도 작성되었다. 洪增植의 피의자 신문조사는 1947년 8월 9일 경찰에서 진행되었으며, 民戰간부의 조사보고가 있었다. 1947년 7월 29일 朝鮮政府政務會議에서는 미소공동위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1947년 8월 19일부터 검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 2회 신문조사는 8월 22일에 실시되었으며, 8월 23일에는 검찰관의 공판청구가 있었다. 변호사 鄭求瑛·劉永允의 변호인 선임신고가 있었다. 1947년 9월 4일 1회 公判이 개정되었으며, 審判官 梁元一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다. 2회는 9월 11일에 개정되어 신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3회 公判은 9월 18일에 개정되었고, 判決을 선고하였다. 9월 23일 上訴權拋棄申請으로 재판이 終結되었다.